

제 2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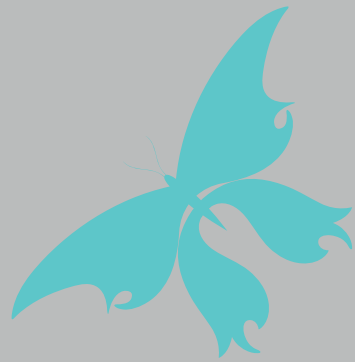
이주의 이미지 재현과 실천

이주 경험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실천하는 집단과 개인의 사례를 검토한다.

아쉬운 다문화 샐러드 볼: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안산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권은혜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세계인의 날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제17회를 맞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5월 20일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 중소도시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세계인의 날’의 역사는 2001년 유엔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공존의 중요성을 배우자는 취지 아래 유엔은 해마다 5월 21일을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로 제정했다. 유엔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2006년 3월에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 기념일의 임시 명칭은 ‘외국인의 날’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세계인의 날’로 명칭이 확정되었고 영문 명칭은 ‘The Together Day’이다.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인 5월 21일이 한국 정부 지정 다른 기념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정해졌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는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기념일 기준으로 1주일을 ‘세계인주간’으로 지정했다.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 19조 중 “세계인의 날”)



다문화 국가의 시민으로 살면서도 필자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해마다 열렸던 것도 잘 모르고 있었고 다문화 축제나 행사에 관중으로 참여해 본 적도 없었다. 한국인들은 거리, 시장, 음식점에서 일상적으로 이주민을 만난다. 하지만 아직 많은 한국인이 출신국의 전통과 문화를 반영하는 예술 활동의 주체로 이주민을 상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민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더 강하다. 한국이 건강한 다문화사회가 되려면 선주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주민의 문화적 표현과 재현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먼저 다문화사회가 된 미국에서 다문화사회를 비유하는 표현인 “용광로(melting pot)”, “샐러드 볼(salad bowl)” 등이 창안되었다. 용광로 이론이 이주민으로 하여금 고유한 문화적 유산을 포기하고 선주민의 문화로 동화하라고 강요한다면 샐러드 볼 이론은 이주민이 문화적 전통을 유지해도 수용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합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인의 날 제정 이후로 이주민을 중요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지자체들과 관심 있는 민간부문에서는 10년 넘게 이주민의 문화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로 17살을 맞은 세계인의 날 행사는 한국의 다문화사회가 획일적인 용광로를 넘어 다채로운 샐러드 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안산시의 다문화축제 2024년 ‘세계인의 어울림한마당’ 제17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안산시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4년 5월 18일에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세계인의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안산시는 118개국 9만 4천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며 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13.2%로 전국 최대 외국인 밀집지이다. 안산시는 전국

에서 유일하게 다문화특구를 운영하는 지자체이다. 외국인 주민과 사업체가 집중된 원곡동 일대는 2009년도부터 다문화특구로 지정되었다. 외국인 주민 관련 행정부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조직 규모가 크고 세분화되어 있는데 문화 및 교육 관련 지원이 돋보인다. 안산시 외국인주민본부 산하 외국인주민지원과에는 지구촌 문화팀이 편성되어 다문화 행사, 외국인 주민 국가공동체 행사를 지원하고 세계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인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안산시가 후원하는 다문화 축제 행사의 일부이기도 하다. 안산시는 2017년 10월 29일에 경기도가 주관하는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집행한 바 있다. 안산시는 현 정부가 내세운 이민청 설립 계획에 호응해 이민청 유치를 선언하며 2023년 10월 22일에 화랑유원지에서 ‘2023년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고 다른 경기도 도시들의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참여 인원도 많았다.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총 6개국 공관장과 외국인 주민대표들, 그리고 약 3천 명의 내외국인 주민이 본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국제특별도시”, “상호문화도시”로서 안산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외국인 주민 행정 편의를 위한 홍보 외에 눈에 띈 문구는 “60개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귀국의 주민들은 안산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갑니다”였다. 외국인 주민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현수막의 문구와 달리 이번 행사에서는 관 주도로 열리는 다문화 축제의 형식적 한계가 명백했다. 제15회 안산다문화시민대상 시상식과 이민청 유치를 염원

하는 퍼포먼스에 초점을 둔 기념식 앞뒤로 문화행사가 배정되었다. 다른 지자체의 세계인의 날 행사를 참여하지 못해 상세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안산시의 문화행사는 익숙한 다문화 축제의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이주민 국가 공동체에서 준비한 전통춤, 악기연주, 민요 공연, 음식체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식전행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본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 대중문화 공연들이었다. 식전행사는 난타 공연으로 문을 열고 태국, 베트남, 몽골의 전통춤과 인도네시아 무예 공연이 이어지다가 해금 및 가야금 연주로 종결되었다. 제1부 기념식에 이어 제2부 “모두 다함께”라는 제목 아래 한국, 네팔, 브룬디, 인도네시아의 전통춤, 외국인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무대가 펼쳐졌고 한국의 팝페라그룹 팬텀일루전의 공연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익숙한 형식의 식상함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규모와 참여자들의 수준은 언급할 만하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전통문화공연으로 태국, 베트남, 몽골, 키르기스스탄, 한국, 네팔, 브룬디, 인도네시아 등 총 8개의 전통춤 공연, 한국 전통 악기 해금과 가야금 연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통무예 실랏 및 외국인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이 있었다. 사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출신국은 중국(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국이지만 베트남만 행사에서 대표되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이주민 공동체가 행사에 주로 참여한 것이다. 주요 이주민 집단보다 규모가 작은 이주민 공동체가 지자체 주도의 행사를 결속의 계기로 활용하는 듯한 인상도 받았다. 인도네시아 공연이 춤과 무예 두 팀이나 들어간 걸 보면 인도네시아인 공동체의 높은 결속력을 짐작할 수 있고 이주민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안산시의 위치를 가늠할 수도 있었다. 안산시는 한국 거주 인도네시아인 공동체(ICC, Indonesia Corea Community)의 거점이기도 하다.

상호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안산시의 다양한 다문화 축제와 행사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이 자주 등장한다. 이번 행사에서도 2010년에 안산시가 선주민 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들로 구성해 창단한 안산시 세계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그리고 한국인으로 구성된 “아시아 민요그룹” 아리아시아의 공연이 눈에 띄었다. 안산시 세계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은 통일된 의상이 아닌 각자 소속 국가의 전통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기념식의 주요 행사는 “시정 발전과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한 제15회 안산다문화시민대상” 시상식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사회통합, 문화, 지역경제의 5개 분야에서 시민들의 추천으로 시상자가 결정되었다. 기념식의 피날레를 장식한 두 퍼포먼스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 의지를 피력하는 ‘모두 함께 희망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부채 퍼포먼스였다. 공연장 무대 한가운데를 바라보는 좌석에 배치된 청중들—이들은 사실 식전행사와 기념식 다음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공연팀 단원들이었다—은 “안산의 길,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부채를 펼치며 사회자를 따라 이민청 유치 희망 구호를 따라 외쳤다.

안산시가 주최하는 다문화 축제에 이주민은 전통문화 재연자, 청중, 이민청 유치 희망자의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도록 동원되었다. 현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제안한 이래로 안산시는 다문화 행

사에서 공개적으로 이민청 유치 의사를 피력했다. 안산시는 2005년 이래로 키워온 이주민 행정과 이주민 문화 활동 지원 역량, 그리고 이주민의 문화행사 참여 의지를 자랑한다. 일례로 2023년 12월 8일에는 ‘에브리씽 글로벌 합창대회’에서 안산시 세계소년소녀합창단, 원곡초등학교 합창단 (다문화특구인 원곡동에 위치한 이 학교 학생 중 98%가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꿈너머 고려인 합창단의 단원들은 이민청의 안산 유치 배너를 손에 들고 함께 노래했다.

분명 이민청 유치는 안산시를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아온 이주민 공동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이주민들을 동원하는 방식은 매우 진부하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공동체를 형성한 역사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이주민을 내세운 관 주도 행사의 문화공연에서 이주민은 선주민에게 이국적인 국가들의 전통문화와 음식의 전달자로만 그려진다. 다문화 축제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살고있는 젊은 이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행사장 주변 모습: 이주민 행정 홍보와 이주민 문화 체험 세계인 어울림한마당 행사장 주변으로는 이주민 대상 시정, 보건 및 노동 상담 구역인 ‘홍보존’, 그리고 문화행사 공간인 ‘포토존’, ‘체험존’, ‘먹거리존’이 배치되었다.

행사장 왼편에 배치된 ‘홍보존’에는 이주민 자치공동체 홍보 부스, 안산시의 외국인 행정 및 산업재해, 보건 행정 안내 부스, 세계문화 체험 부스가 뒤섞여 있었다. 특히 안산시 외국인주민지

원본부 산하 센터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려인문화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통합홍보관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사회통합정책인 이주민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처음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생활정보와 기본 법 교육과정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귀화나 영주권과 같은 장기체류자격을 획득하려는 재한외국인 대상 한국어·사회·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여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가족 단위 참여자가 많았던 만큼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국 전통문화 체험 부스가 ‘홍보존’을 비롯해 ‘포토존’과 ‘체험존’을 지배했다. “세계엄마들의 알록달록 다이나믹 살롱”, “세계 전통의상 키링만들기”, “일본문화 ‘고이노보리’ 만들기”, “세계의 여러 전통가옥 만들기”, “세계의상체험 & 포토존”, “세계악기체험”, “세계놀이체험” 등이다. 체험존에는 베트남, 미얀마, 중국, 캄보디아, 멕시코, 일본,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의 개별 부스도 눈에 띄었다.

축제에서 음식이 빠질 수 없다. ‘먹거리존’에는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 중국, 튀르키예, 한국, 네팔, 태국 음식 부스가 참가자들의 발길을 끌어당겼다. 가족 단위 참여가 많은 ‘포토존’과 ‘체험존’을 구경만 하다가 ‘먹거리존’에 이르니 필자는 적극적 참여 욕구를 느꼈다. 팟타이로 시작해 케밥을 거쳐 디저트 코스 바클라바로 마무리. 한 번의 식사에 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를 다녀온 셈이다.

상투적인 관 주도 다문화 축제가 된 세계인의 날 행사 안산시의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 내외국인 주민들이 하나의 이웃이 되는 문화 공간을 창출하려 노력했지만, 전반적으로 관 주도 홍보 행사의 형식성이 아쉬웠다.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지만 본 행사의 문화행사, 문화체험 및 음식 부스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 위주로 구성되었다. 물론 튀르키예, 멕시코, 아프리카(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이 아니라)도 포함되어 아시아 대륙의 지리적 경계를 살짝 넘기는 했다. 하지만 세계인의 날 행사에 동원되는 ‘세계인’ 개념에는 서구와 비서구,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의 이분법이 내포되어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행사장소 선정 역시 관변행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사실 외국인 주민의 집중 거주지이자 상업시설은 안산역 부근의 다문화특구에 몰려 있다. 화랑유원지는 다문화특구에서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 주민은 신축 고층 아파트 단지에 사는 중산층 내국인이다. 행사장에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내국인도 보였지만 이들은 행사에 참여하기보다는 주말에 화랑유원지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것 같았다. ‘세계인의 날’ 행사의 취지가 안산시 내외국인 주민의 문화적 소통이라는 점에서 안산시의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비교적 최근에 재정비된 화랑유원지가 선택된 사정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 행사에 주요 참여자인 외국인 주민과 단체의 입장에서 화랑유원지는 접근성과 상징성 모두 낮은 공간이다.

세계인의 날이 내외국인의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목표로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문화의 영역에서도 선주민과 이주민의 위치

는 비대칭적이다. 이주민은 지배적인 인구인 선주민의 공간과 문화에서 선주민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존재로 동원된다. 다문화 축제의 진정한 목표는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를 한국 사회의 문화 중 하나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문화 축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주민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주민 출신국의 전통 춤과 무예, 음악 연주가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번 행사가 이민청 유치라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만 내세우지 않고 이주민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했다면 어땠을까?

행사장을 떠나 필자와 동료 연구자는 안산역 부근의 다문화특구를 방문했다. 다양한 국적과 피부색의 이주민들이 주민이자 소상공인으로 모여 사는 다문화특구 거리는 활기가 넘쳤다. 여기선 한국인을 찾아보기도, 한국어를 듣기도 어려웠다. 세계인의 일부지만 다른 세계인과 소통이 부족한 이들은 한국인이 아닐까? ‘세계인의 날’ 행사를 관 주도가 아니라 안산시에 이미 뿌리내린 다양한 외국인 단체와 민간단체와의 협의로 조직한다면 많이 다른 행사가 되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제17회 세계인의 날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참여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그 주에 열린 다른 세계인의 날 행사와 별반 차이가 없는 다문화 축제였다. 샐러드는 재료와 드레싱의 배합에 따라 각 재료의 맛을 살리고 조화를 이루면서도 전에 없던 맛을 낼 수 있다. 내년 세계인의 날 행사에 한국의 이주민 공동체를 더 잘 대변하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이 등장하길 기대해 본다.